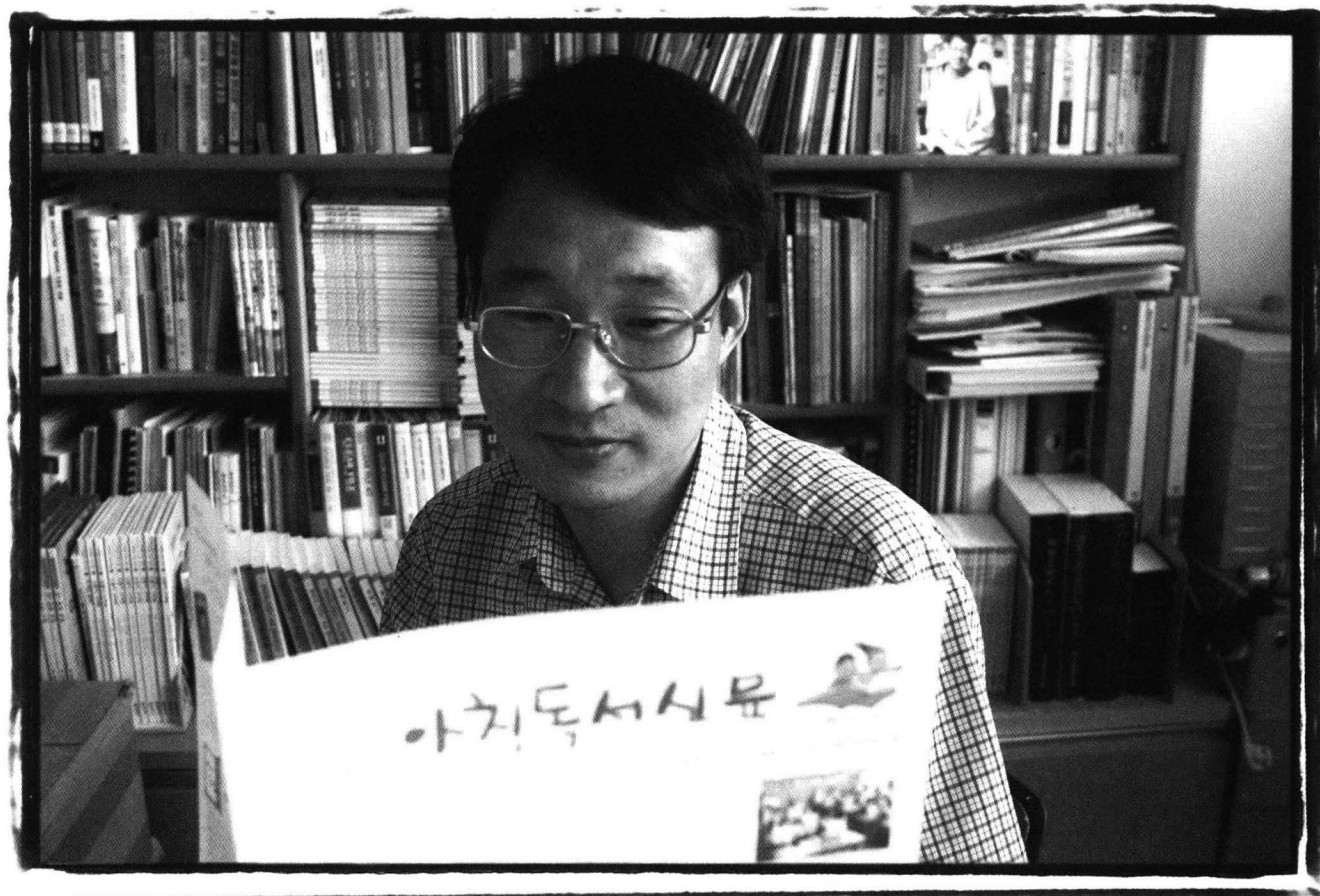


아침독서운동 펼치는 어린이도서관연구소 한상수 소장

# 기적의 10분, 아이들이 바뀌고 학교가 변한다

10분. 마음먹고 무엇을 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한 휴식시간 정도로 맞춘 시간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 10분이 매일 아침 학생들의 책읽기에 소용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아이들이 바뀌고 학교가 변한다. 독서라는 것의 궁극적인 기대효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도서관연구소 한상수(41) 소장은 새로운 '10분 혁명'을 제안하며, 아침독서 10분이 미치는 메가톤급 위력을 설파한다. 아침독서운동 전파자로 대한민국 학교에 신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한 소장을 만나 아침독서운동의 의미와 효과를 들어보았다.



- 한 소장의 진득한 책과 어린이사랑, "사회적 공감대 이뤄 아침독서운동 확산"  
 "푸른꿈"이라는 어린이도서관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자로서 아쉬운 것은, 고학년 학생들의 도서관 출입이 뜸하다는 것입니다. 교과수업이 중요시되면서 책읽기를 멀리하는 것이지요. 독서지도에 관한 공교육의 노력이 있어 주어

야 합니다. 작년 12월 <출판저널>에 실린 백원근 선생의 '일본인의 2004년 독서실태'란 글에서 아침독서운동 관련정보를 보게 되었는데, '그래 바로 이거다'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한국출판연구소 백원근 책임연구원의 글에 따르면, 2004년 일본 학생들의 독서율은 전년대비 고등학생 16퍼센트, 중학생 13퍼센트, 초등학생 2퍼센트라는 급진장세를 보였다. 독서량 증가

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학과수업 전 10분간 실시하는 아침독서 운동. 한국에서도 사회적인 독서운동으로 확장되었으면 하고 바랐던 한 소장은 주저 없이 아침독서운동 전파자로 나서기로 결심했다. 물론 여기에는 독서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우리 학교들의 그릇된 양태가 한몫을 거들었다.

아침독서운동에 관한 한 소장의 노력은 전방위적이다. <아침독서신문>을 정기적으로 발행해 전국 학교와 관련기관에 배포, 홍보하는가 하면, 인터넷 카페 '아침독서운동 <http://cafe.daum.net/morningreading>'을 개설해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제공하고도 있다. 일본 서점에서 눈 밝게 고른 하야시 히로시가의 《아침독서 10분이 기적을 만든다》 국내출간을 위해 손수 책을 번역해 출판사에 넘기기도 했으며, 뜻을 함께 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2005년 아침독서용 추천도서목록' 684권을 선정해 각 학교에 전달하기도 했다. 벌려놓은 일이 많다 싶지만, 이들 모두 허술하게 진행하는 법 없다. 추천도서목록과 같은 민감한 작업을 할 때는 학생들을 모아 철저한 모니터링을 가졌으며, 아침독서운동 인터넷 카페는 하루에도 몇 차례 들러 방문자들의 물음에 답변을 하고 있다. 책과 어린이에 대한 사랑이 다르지 않고서는 언감생심 흉내내 볼 수도 없는 열정이다.

"학교에서 주가 되어야 하는 독서운동이지만, 제안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독서운동 확산을 위해 많은 곳에서 활발한 지원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일본에서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아침독서운동을 후원하고 있어요. 신문사, 교육기관, 출판사, 서점 등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의가 몇 차례 이어지기도 했지요.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운동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룬 것이죠."

### ● 기대치 않았던 효과를 제공하는 독서운동, 불가사의한 10분을 체험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들이 책임기를 즐긴다는 점이다. 전에는 선생님께서 책을 읽으라고 하면 마지못해 읽기 싫은 표정으로 읽거나, 선생님 몰래 친구들과 이야기만 했는데, 10분 아침독서를 하고 난 후부터는 책임기를 즐기고 기다린다는 것이다."

<아침독서신문>에 실린 미원초등학교 김려원 학생의 아침독서운동 소감이다. 김려원 학생이 느낀 바와 같이, 한 소장은 아침독서운동의 가장 큰 효과로 '학생들의 책임기 습관'을 맨 앞에 둔다. 자기계발에 있어 책임기만큼 좋은 것은 없다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함께 들인 책임기 습관은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몰고 왔다.

책을 읽은 뒤 시작되는 수업은 한결 차분해졌으며, 집중력을 갖고 수업을 듣게 된 학생들의 학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사제간 유대와 교우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으며, 심지어 집단따돌림을 받던 학생도 주변 아이들과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며 관계를 회복해 갔다. 한 소장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효과들이 숨어 있는 독서운동", "아침독서운동을 시행하는 많은 학교들이 그 효과에 놀라워하고 있

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질문이 생기는데, 30분도 1시간도 아닌 10분으로 과연 그 같은 변화가 실제 일어날 수 있는지는 것이다.


"10분이란 시간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읽으면 얼마를 읽는다고 아이들이 바뀌고 학교가 변하느냐는 물음이 그것이지요. 어른들은 몰라도 학생들은 압니다. 내용이 짧은 어린이책 같은 경우는 10분 동안 너끈히 두 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주지할 것은 아이들이 책임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학과수업 전에 읽다 만 책을 점심시간에도 읽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읽게 되지요. 텔레비전과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던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독서운동들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실천의 문제를 떠나 의욕만 앞세운 데 있다. 학교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아이들이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는 10분이야말로 최적의 시간인 셈이다.

한 소장의 이러한 노력이 더해 현재 전국의 많은 학교가 아침독서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몇몇 학교는 한 소장에게 자문을 구하고도 있다. "500개 이상의 학급이 시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한 소장은 "학교 차원에서 뜻이 없더라도 개별 학급 차원에서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침독서운동"이라며 학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랐다.

### ● 내 아이, 남의 아이 사랑하는 마음, 독서운동가의 길 걷게 해

한 소장은 유별난 책사랑 어린이사랑으로 지금까지 많은 칭찬과 박수를 받아 왔다. 어린이도서관 '푸른꿈'을 만들어 아이들과 책을 가깝게 했고, 어린이도서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도서관연구소를 설립, 어린이도서관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성실하게 제시하기도 했다. 지금이야 반듯한 어린이도서관이 속속 지어지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홀로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을 주창하기도 했다. 단언컨대, 이 모든 일엔 잇속을 차려보자는 한 소장의 심산이 단 1퍼센트도 없다. 자신의 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변해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데 기쁨을 느꼈던 아버지가, 내 아이만이 아닌 남의 아이까지 그 기쁨을 누리려 한다고 믿고 일을 벌인 아버지가 바로 한 소장이다.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글도 쓰고 번역도 하고 해서 소박하게 살 정도는 됩니다. 어린이도서관연구소에서 펴낸 《어린이도서관 길잡이》가 잘 팔려 작년 한 해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지요. 어린이독서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책과 어린이문화'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더 좋은 사업을 위해 수익모델도 고민해야겠지요. 사람의 생을 바꾸는 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책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책을 통해 행복함을 느끼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취재\_ 박용두 기자 | 사진\_ 박신우 기자